

2021, 1, 26

은행/지주 Analyst <mark>은경완</mark> 02.6454-4870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News

인니 부코핀은행 인수 국민은행, 1조6천억원 손배소송 당해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중형은행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 주주로부터 1조6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KB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2대 주주 Bosowa)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9개월 만에 1%대로

연합뉴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며 10년물 금리는 연 1.780%로 지난해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1)미국의 블루웨이브 현실화, 2)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추진 등 국내 요인이 금리 상방 압력 가해

1금융권 대출 조이는데,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중금리 고객 잡아라"

조선비즈

은행 대출 규제로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저축은행업계는 속속 신용대출 금리를 낮추며 고객을 유치

"소상공인 대출 몰렸다" 신한은행 앱 '먹통'

조선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1000만원 임차료 대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접속자 수가 폭증, '신한 쏠(SOL)'이 25일 오전부터 접속 장애 일으켜

마이데이터 정보 유통 '12개 카테고리'로 나눠 쓴다

전자신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빅테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할 전자상거래 주문 내역 정보는 12개 카테고리로 범주화해서 제공키로 최종 결정됐다.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서비스 등으로 분류돼 인식

코로나19의 역설…생보사, 방카슈랑스 실적 40% 껑충

아시아경제

코로나19 영향으로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강화하고, 은행은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 확대에 나선 결과 방카슈랑스 판매실적이 급증 지난해 10월 누적기준 생보사의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는 5조3676억원으로 전년 3조8297억원 대비 1.5조원 증가한 40.2% 상승

윤곽 드러난 보험 판매자회사…GA 판 흔든다

아시아경제

보험의 제작과 판매를 분리(제판분리)를 위해 업무 기능의 분화를 넘어 대형화와 전문화를 갖춘 별도 조직으로 지위에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12월 판매채널 분리를 발표하면서 보험 재무설계사에 의하 컨설팅 영업채널, 기업의 손해를 보장하는 기업보험채널, 모바일 판매 채널을 구축

프레스티지만 3,436억…1분기 IPO 최강자 노리는 삼성증권

서울경제

삼성증권이 올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기업공개(IPO) 1건으로 지난해 온기 상장 주관 실적을 단숨에 넘어섰다.

삼성증권은 수요예측이 흥행해 희망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ㆍ선진뷰티사이언스의 상장 주관을 맡았으며 솔루엠의 인수단으로 참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는 자료에 에세크 레이트 본트 게 되고 공이에게 많아가고 쓰고에, 커뮤크 구요는 발표하여 본급 없어 보고 공의에 마음하게 함께 하는데 그를 보고 되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 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 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